

2021-10

## 금융시장 브리프

2021. 10. 07.

- 9월 이후 금융시장 불안을 초래하고 있는 대외 불확실성\*이 점차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3분기 기업실적이 양호하게 발표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10~11월 국내외 주가지수와 통화가치가 반등하고 국채금리는 오름세를 이어갈 전망

\* 연준 테이퍼링 가시화, 중국 부동산 업체 파산 우려, 미국 부채한도(유예)·인프라 법안 관련 불확실성으로 9월 이후 금융지표의 변동성이 커졌으나, 연준과 인민은행이 금융시장 안정에 필요한 정책수단을 보유하고 있고 역사적으로 미국 정치권이 부채한도 증액(유예)에 최종 합의해 왔다는 점에서 위험자산가격 조정이 단기에 그칠 것으로 보임

- 한국은행은 경기 개선, 물가 상승, 주택시장과 연계된 금융불균형 우려를 고려하여 11.25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5bp(0.75% → 1.00%) 추가 인상(10.12일 금통위에서는 동결)
- 미 연준은 11.2~3일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0.25% 상한)하고 테이퍼링 계획을 발표
- 국고채 금리는 경기 회복과 지표물가 상승, 기준금리 추가 인상 기대를 반영하여 오름세(국고 3년물 9월말 1.59% → 10월말 1.65% → 11월말 1.70%)
- 선진국 국채금리는 유가 강세, 연준의 연내 테이퍼링 가시화, 재정지출 확대에 상승(미 국채 10년물 9월말 1.49% → 10월말 1.60% → 11월말 1.65%)
- 원화는 기준금리 추가 인상 기대, 수출 호조와 경상수지 흑자폭 확대에 소폭 강세 반전(원/달러 9월말 1,184 → 10월말 1,180 → 11월말 1,180)
- 위안·유로화·엔화는 서비스업 정상화 기대(유럽), 외국인 국채투자자금 유입(중국), 신임 총리 선출 이후 재정지출 확대 예상(일본)으로 완만한 강세로 반등
- 한·미 주가지수는 최근 단기조정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줄어든 가운데, 기업실적 개선을 확인하면서 소폭 오름세로 반전(KOSPI 9월말 3,069 → 10월말 3,080 → 11월말 3,100)
- 은행업 주가지수는 시중금리 상승, 양호한 자산건전성 유지로 상승세 지속(9월말 782 → 10월말 800 → 11월말 820)
- 그린스탁지수(WGSI)는 수소경제 구축을 위한 정책적 지원 강화, 주요 EV업체 상장에 따른 국내 부품사 매출 확대 기대에 오름세(9월말 1,955 → 10월말 1,965 → 11월말 1,975)

작성자: 경제·글로벌연구실 허문중 팀장(02-2173-0568)

ESG·기업금융연구실 성지영 수석연구원(02-2173-0561)

경제·글로벌연구실 박수빈 조사원(02-2173-0556)

경제·글로벌연구실 곽지희 인턴(02-2173-0558)

책임자: 경제·글로벌연구실 권영선 실장(02-2173-0569)

## I. 10~11월 금융시장지표 전망

### 1. 금리

#### 가. 국내금리

##### ■ 한국은행은 10.12일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동결한 이후 11.25일 25bp(0.75% → 1.00%) 추가 인상할 전망

- 10월 금통위에서는 ‘통화정책 완화 정도의 점진적 조정’이라는 정책 기조에 맞추어 기준금리를 연속 인상하기보다는 직전 기준금리 인상(8.26일) 효과, 가계대출 동향, 최근 금융시장 불안 요인을 점검하면서 기준금리를 0.75%에서 동결할 전망

\* 금통위는 8.26일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다”라고 언급하였으며, 이주열 총재는 금통위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누적된 금융불균형 완화를 위한 첫 발을 떤 것”이라는 발언으로 추가 금리인상을 시사

- 11월 금통위에서는 대외 불확실성이 점차 완화되는 가운데, 실물경제 개선세 지속, 주택시장과 연계된 금융불균형에 대한 우려를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기준금리가 25bp(0.75% → 1.00%) 추가 인상될 것으로 예상

\* 소비자물가(전년동월비, %): 6월 2.4 → 7월 2.6 → 8월 2.6 → 9월 2.5

\* 근원소비자물가(전년동월비, %): 6월 1.5 → 7월 1.7 → 8월 1.8 → 9월 1.9

\* 5대 은행 가계대출(기간중 증감, 조원): 6월 1.3 → 7월 6.2 → 8월 3.5 → 9월 4.1

\* 주택매매가격(전년동월비, %): 6월 13.9 → 7월 14.3 → 8월 15.1 → 9월 16.0

##### ■ 국고채 3년물 금리 상승 전망: 9월말 1.59% → 10월말 1.65% → 11월말 1.70%

- 통화정책에 민감한 국고채 3년물 금리는 기준금리 인상 기대로 상승 압력이 상존하나, 금리 인상 사이클 선반영으로 추가 상승폭은 다소 제한

- 국고채 금리(3년물)와 기준금리와의 격차(80bp 내외)에는 향후 3년 이내 2~3차례 기준금리 추가 인상 기대가 반영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11월에 기준금리가 25bp 인상되더라도 국채금리의 추가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

\* 국고채 3년물-기준금리 스프레드(bp): 2011.3.9일 108 → 2019.8.19일 -41(저점) → 2021.7.15일 100(10년 4개월래 최대) → 9.30일 84

■ 국고채 10년물 금리 상승 전망: 9월말 2.24% → 10월말 2.26% → 11월말 2.28%

- 지표물가 상승, 백신 보급 확대에 따른 경기 회복세로 국고채 10년물 금리에는 상승압력이 존재하나, 주요국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른 2022년 이후 글로벌 경기 모멘텀 약화 가능성, 국내외 채권 금리차 확대, 보험사 등의 장기물 투자수요로 장기금리 상승폭이 제한

\* 국고채 10년물-미 국채 10년물 금리 스프레드(bp): 2021.1.4일 81 → 3.29일 26(단기 저점) → 7.19일 78(6개월래 최대) → 9.30일 75

\* 국고채 10년물-3년물 금리 스프레드(bp): 2011.1.13일 107 → 2019.8.28일 6(단기 저점) → 2021.5.14일 104(10년 4개월래 최대) → 9.30일 64

국내금리 전망

항목	단위	2020	2021(F)	2021.8월	9월	10월(F)	11월(F)
기준금리	기말, %	0.50	1.00	0.75	0.75	0.75	1.00
국고채 3년	기말, %	0.98	1.60	1.40	1.59	1.65	1.70
국고채 10년	기말, %	1.71	2.10	1.91	2.24	2.26	2.28

주: 2021년말 전망치는 '우리금융그룹 거시경제·금융시장지표 전망'(2021.9.28일) 기준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9월 국고채 금리 전망에 대한 평가(C등급<sup>1)</sup>)

- 9월말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59%로 전망치(1.45%)를 크게 상회
- 기준금리 추가 인상 시그널, 미 국채금리 오름세, 유가 급등 우려로 국고채 금리가 예상보다 큰 폭으로 상승

나. 해외금리

■ 미 연준은 11.2~3일 FOMC에서 기준금리를 동결(0.25% 상한)할 전망

- 9월 고용지표(10.8일 발표 예정)가 개선되는 모습이 확인되면 11월 FOMC에서 테이퍼링 규모, 기간 등이 발표될 것으로 관측

\* 9월 FOMC에서 이르면 올해 11월 테이퍼링 발표, 2022년 중반(6~7월) 종료 가능성을 시사했으나, 테이퍼링이 기준금리 인상이 임박한 신호가 아니라는 기존 입장을 견지(연준은 평균물가목표제 도입을 통해 고용과 인플레이션이 목표 수준(완전 고용, 물가

1) 대표 금리지표(국고채 3년)의 실제치와 전망치 간 격차가 ±1bp 이하는 S등급, ±3bp 이하는 A등급, ±5bp 이하는 B등급, ±5bp 초과는 C등급으로 평가

상승률 2%)으로 충분히 회복될 때까지 제로금리 정책을 유지할 가능성을 시사)

- \* 점도표 상 연준 위원들이 예상하는 금리인상 시점(중간값 기준)은 2023년에서 2022년으로 앞당겨짐(FOMC 위원 18명 중 9명이 2022년 인상을 전망)
- \* 비농가 고용(전월비, 만명): 5월 61.4 → 6월 96.2 → 7월 105.3 → 8월 23.5

■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상승 전망: 9월말 1.49% → 10월말 1.60% → 11월말 1.65%

- 미 국채금리는 물가·고용지표 상승, 연내(11~12월) 테이퍼링 개시 기대,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점차 높아지겠으나, 2022년 이후 경기둔화 가능성으로 금리 상승폭이 다소 제한
  - \* 실업률(%): 5월 5.8 → 6월 5.9 → 7월 5.4 → 8월 5.2
  - \* 근원물가(core PCE 전년동월비, %): 5월 3.8 → 6월 4.5 → 7월 4.3 → 8월 4.0
  - \* 전산업 시간당 임금(전년동월비, %): 5월 1.9 → 6월 3.7 → 7월 4.1 → 8월 4.3
  - \* 9.27일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에 대한 공급망 차질 영향이 예상보다 크고 길어졌으며, 향후 고물가 우려가 지속될 경우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언급
  - \* 미시간대 소비자심리지수: 6월 85.5 → 7월 81.2 → 8월 70.3(2011년 12월 이후 최저치) → 9월 72.8
  - \* 바이든 행정부가 임시예산안을 승인함에 따라 연방정부가 섯다운을 피한 가운데, 부채 한도 상향 법안, 1.2조 달러(인프라), 3.5조 달러(사회복지) 예산안에 대한 민주·공화당 간 협상이 10월중 합의에 이를 것으로 관측

■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 상승 전망: 9월말 -0.20% → 10월말 -0.15% → 11월말 -0.10%

- ECB의 통화정책 정상화 논의, EU 경제회복기금 집행, 독일 신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기대로 독일 국채금리는 상승(마이너스 금리폭 축소)하겠으나, 향후 연립정부 구성 관련 불확실성이 금리 오름세를 제약
  - \* ECB는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4분기 펜데믹긴급매입프로그램(PEPP)을 통한 자산매입 규모를 지난 2, 3분기 대비 소폭 하향조정했으며, 라가르드 총재는 테이퍼링이 아닌 재조정(rebalancing)이라고 설명
  - \* 유로지역 CPI(전년동월비, %): 6월 1.9 → 7월 2.2 → 8월 3.0 → 9월 3.4
  - \* 9.26일 총선에서 재정확대 성향의 사민당(중도좌파)이 기민·기사당(중도우파)를 제치고 승리하였으나, 과반 의석을 차지하지 못해 집권을 위해서는 향후 녹색당, 자민당 등과의 연립정부 구성이 불가피하며 기민·기사당의 집권 가능성도 상존

■ 영국 국채 10년물 금리 상승 전망: : 9월말 1.02% → 10월말 1.05% → 11월말 1.10%

- 코로나 변이 확산세 지속에도 치명률 하락에 따른 정부의 위드코로나 정책 시행,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영란은행의 기준금리 인상 논의 개시로 상승 압력이 우세
  - \* 코로나 확진자수(만명, 7일 이동평균): 7.19일 4.5 → 7.31일 2.8 → 8.31일 3.3 → 9.30일 3.4(백신 접종률은 9.30일 기준 1차 72%, 2차 66%)
  - \* BOE는 9.24일 통화정책위원회(MPC)에서 인플레이션 우려(4분기 중 4% 상회 전망)에 따라 향후 통화긴축 필요성에 대해 언급. 통화정책위원들은 긴축의 시작이 기준금리 인상이라는 점에 동의했으며, 9명 중 2명이 조기 테이퍼링을 주장
  - \* 영국 CPI(전년동월비, %): 6월 2.5 → 7월 2.0 → 8월 3.2(1997년 이후 최고치)

■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 소폭 상승 전망: : 9월말 0.07% → 10월말 0.08% → 11월말 0.09%

- 기시다 정부의 재정지출 확대 가능성, 방역단계 완화에 따른 내수회복 기대감, 글로벌 금리 오름세를 반영하여 상승압력이 커지겠으나, 일본은행(BOJ)의 완화적인 통화정책(Yield Curve Control)을 감안하면 국채금리 오름폭이 크게 제한
  - \* 일본 정부는 코로나 확진자수 감소, 백신 접종률 상승에 힘입어 도쿄도 등 19개 지역에 발령했던 긴급사태·중점조치를 10.1일부로 해제, '위드 코로나'로 방역체계를 전환
  - \* 9.30일 구로다 일본은행(BOJ) 총재는 새 내각 하에서도 완화적인 통화정책 기조를 이어나가겠으며, 필요시 새로운 금융완화 정책을 실시할 것이라고 강조

해외금리 전망

항목	단위	2020	2021(F)	2021.8월	9월	10월(F)	11월(F)
미국 기준금리	기말, %	0.25	0.25	0.25	0.25	0.25	0.25
미국 국채 10년물	기말, %	0.91	1.55	1.31	1.49	1.60	1.65
독일 국채 10년물	기말, %	-0.57	-0.20	-0.38	-0.20	-0.15	-0.10
영국 국채 10년물	기말, %	0.20	0.90	0.71	1.02	1.05	1.10
일본 국채 10년물	기말, %	0.03	0.10	0.03	0.07	0.08	0.09

주: 2021년말 전망치는 '우리금융그룹 거시경제·금융시장지표 전망'(2021.9.28일) 기준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9월 미 국채금리 전망에 대한 평가(C등급<sup>2)</sup>)

- 9월말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1.49%로 전망치(1.33%)를 큰 폭 상회
- 연준의 9월 FOMC 회의가 매파적으로 평가되고, 공급망 차질 영향으로 인플레이션 우려가 심화됨에 따라 미 국채금리가 예상보다 급등

2. 환율

■ 원/달러 환율 소폭 하락(원화 강세) 전망: 9월말 1,184 → 10월말 1,180 → 11월말 1,180

- 미국의 부채한도·인프라 법안 통과 여부, 중국 부동산 업체 파산 가능성 등 불확실성 요인들이 점차 해소되는 가운데,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추가 인상(11월 예측) 기대에 따른 미국과의 금리차 확대, 수출 호조와 경상수지 흑자 지속으로 원화는 소폭 강세 반전
  - \* 달러 인덱스(기말): 6월 92.4 → 7월 92.2 → 8월 92.6 → 9월 94.2
  - \* 통관수출(전년동월대비, %): 6월 39.7 → 7월 29.7 → 8월 34.8 → 9월 16.7
  - \* 무역수지 흑자(억달러): 6월 44.4 → 7월 18.3 → 8월 16.5 → 9월 42.0

■ 위안/달러 환율 소폭 하락(위안화 강세) 전망: 9월말 6.44 → 10월말 6.43 → 11월말 6.40

- 중국 실물지표 둔화와 정부의 산업규제 강화, 부동산기업(형다그룹 등)의 파산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정책당국의 외환시장 개입과 경기부양 의지, 외국인 채권 투자자금 유입으로 위안화는 소폭 절상
  - \* 제조업 PMI(기준선=50): 6월 50.9 → 7월 50.4 → 8월 50.1 → 9월 49.6
  - \* 산업생산(7월 6.4% → 8월 5.3%, 전년비), 소매판매(8.5% → 2.5%) 증가율이 3월 고점 이후 5개월 연속 둔화
  - \* 9.2일 인민은행은 올해 재대출(시중은행에 대한 저리융자) 규모를 추가로 3천억위안 늘려 지방소재 은행들의 중소기업·자영업자 대출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으며, 9.17~30일에는 시중은행 대상 RP 매입(총 7,900억 위안)을 통해 금융시장에 통상적인 규모보다 많은 유동성을 공급

2) 대표 금리지표(국고채 3년)의 실제치와 전망치 간 격차가 ±1bp 이하는 S등급, ±3bp 이하는 A등급, ±5bp 이하는 B등급, ±5bp 초과는 C등급으로 평가

■ 엔/달러 환율 소폭 하락(엔화 강세) 전망: 9월말 111.3 → 10월말 111.0 → 11월말 110.7

- 연준의 연내 테이퍼링 실시 예상에 따른 미·일 금리차 확대에도 불구하고, 미국 부채한도·중국 부동산 업체 관련 불확실성 완화, 기시다 총리 취임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 기대로 엔화는 강세 압력이 다소 우세
  - \* 미국-일본 금리 스프레드(10년물 국채, bp): 2020.2.12일 168 → 8.4일 49(단기 저점) → 2021.3.31일 165(13개월래 최대) → 9.31일 128 → 9.30일 141
  - \* 노무라증권은 기시다 내각이 약 30조엔 규모의 경기부양 패키지를 발표할 것으로 예측

■ 달러/유로 환율 소폭 상승(유로화 강세) 전망: 9월말 1.158 → 10월말 1.161 → 11월말 1.164

- 미국과의 경기 회복·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차이에도 불구하고, 미국 부채한도·중국 부동산 업체 관련 불확실성 완화, EU 경제회복기금 집행, 서비스업 중심의 경제활동 정상화 기대로 다소 강세
  - \* 유로지역 제조업 PMI(기준선=50): 7월 62.8 → 8월 61.4 → 9월 58.6
  - \* 유로지역 서비스업 PMI(기준선=50): 7월 59.8 → 8월 59.0 → 9월 56.4
  - \* 9월 유로존 CPI 상승률은 전년동월비 3.4%로 13년래 최고 수준을 나타냄

주요국 환율 전망

항목	단위	2020	2021(F)	2021.8월	9월	10월(F)	11월(F)
원/달러	기말, 원	1,086	1,180	1,160	1,184	1,180	1,180
위안/달러	기말, 위안	6.53	6.50	6.46	6.44	6.43	6.40
엔/달러	기말, 엔	103.3	110.5	110.0	111.3	111.0	110.7
달러/유로	기말, 달러	1.222	1.175	1.181	1.158	1.161	1.164

주: 2021년말 전망치는 '우리금융그룹 거시경제·금융시장지표 전망'(2021.9.28일) 기준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9월 원/달러 환율 전망에 대한 평가(A등급)<sup>3)</sup>

- 9월말 원/달러 환율은 1,184원으로 전망치(1,155원)를 상회
- 형다그룹 사태, 미국 부채한도 협상 등 글로벌 금융시장 불확실성 증대, 연준의 테이퍼링 가시화로 원화는 예상과 달리 약세

3) 대표 환율지표(원/달러)의 실제치와 전망치 간 격차가 ±1% 이하는 S등급, ±3% 이하는 A등급, ±5% 이하는 B등급, ±5% 초과는 C등급으로 평가

### 3. 주가지수

#### ■ KOSPI 상승 전망: 9월말 3,069 → 10월말 3,080 → 11월말 3,100

- 최근 지수 하향 조정으로 밸류에이션 부담이 줄어든 가운데, 미국 부채한도·중국 부동산 업체 관련 불확실성 완화, 양호한 수출 실적, 확장적 재정정책, 풍부한 시중 유동성을 바탕으로 KOSPI가 소폭 상승 반전

\* 12개월 선행 PER(기말, 배, Bloomberg): 7월 11.4 → 8월 11.5 → 9월 11.1

\* 9월 중 주체별 코스피 순매수(조원): 개인 +2.7 외국인 +1.1, 기관 -4.2

#### ■ 은행주<sup>4)</sup> 상승 전망: 9월말 782 → 10월말 800 → 11월말 820

- 국내 은행주는 가계대출·금융회사 규제 관련 정책적 불확실성에도 불구하고, 시중금리 오름세, 양호한 자산건전성 유지로 완만한 상승세 지속

\* 금융위는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을 잔액 기준 5~6%대, 내년 이후 4%대로 낮추는 가계부채관리방안을 시행하고 있으며,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10.6일 국정감사에서 가계부채 관련 추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언급

#### ■ 그린스탁지수(WGSI<sup>5)</sup>) 상승 전망: 9월말 1,955 → 10월말 1,965 → 11월말 1,975

- 미국 전기차 스타트업 리비안(Rivian)\* 상장에 따른 국내 부품벤더사(삼성 SDI 포함) 주가 상승 기대, 수소경제 활성화 정책에 의한 수소 섹터 회복으로 그린스탁지수가 반등

\* 리비안은 아마존이 7억 달러를 투자한 EV 제조사로 11월 상장 예정이며, 기업가치는 최대 800억달러(약 94.8조원)로 현대차(42.7조원), 기아차(32.9조원) 합산액을 상회

\* 2021.4분기 수소기반전력 구매의무화를 담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2.0' 발표 예정

#### ■ KOSDAQ 상승 전망: 9월말 1,003 → 10월말 1,005 → 11월말 1,010

- 국내외 통화 완화 축소, 공급망 차질 지속에도 불구하고, 미국 부채한도·형다 그룹 관련 불확실성 완화, 한국형 뉴딜정책 관련 산업 수혜, 주요 벤처기업

4) 시장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 10월부터 국내 은행업 주가지수를 기존 와이즈에프엔 WI500지수에서 한국거래소 KRX은행지수로 변경

5) 그린스탁지수(WGSI, WFRI Green Stock Index):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43개 클린 에너지 펀드에 담긴 641개 종목 중 그린 비즈니스(전기차·부품, 수소, 태양광, 2차전지, 풍력, 에너지효율, 리사이클링, 기타 신재생에너지) 연관 매출액이 10% 이상인 92개 종목의 시가총액('20.1월=1,000)을 가중평균하여 산출



IPO추진 등을 반영하여 반등 예상

\* 9월 중 주체별 코스닥 순매수(조원): 개인 +1.9, 외국인 -0.1, 기관 -1.8

■ S&P500 상승 전망: 9월말 4,308 → 10월말 4,400 → 11월말 4,450

- 최근 지수 조정으로 고평가 부담이 축소된 가운데, 미국 부채한도·중국 부동산 업체 관련 불확실성 완화, 백신 접종 가속화에 따른 경제활동 정상화, 기업실적 개선,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지출 확대에 따라 S&P500 지수는 최근의 단기 조정을 마무리하고 상승 반전

국내외 주가 전망

항목	단위	2020	2021(F)	2021.8월	9월	10월(F)	11월(F)
KOSPI	기말	2,873	3,300	3,199	3,069	3,080	3,100
KRX은행	기말	614	830	762	782	800	820
WCSI	기말	177	2,013	1,958	1,955	1,965	1,975
KOSDAQ	기말	968	1,100	1,038	1,003	1,005	1,010
S&P 500	기말	3,756	4,550	4,523	4,308	4,400	4,450

주: 2021년말 전망치는 '우리금융그룹 거시경제·금융시장지표 전망'(2021.9.28일) 기준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9월 KOSPI 전망에 대한 평가(C등급)<sup>6)</sup>

- 9월말 KOSPI는 3,069로 전망치(3,230)를 하회
- 헝다그룹 사태, 미국 국채 금리 급등, 원자재 가격 상승, 공급망 차질 지속으로 KOSPI 지수가 예상과 달리 약세

※ 9월 은행업 주가지수 전망에 대한 평가(S등급)

- 9월말 은행업 주가지수는 1,990으로 전망치(2,010)에 대체로 부합

※ 9월 그린스탁지수 전망에 대한 평가(A등급)

- 9월말 WCSI는 1,955로 전망치(1,970)를 소폭 하회
- 수소시장 활성화 정책 발표 지연에 따른 관련 섹터 부진으로 그린스탁지수가 예상과 달리 반락

6) KOSPI, 은행업 주가지수의 실제치와 전망치 간 격차가 ±1% 이하는 S등급, ±3% 이하는 A등급, ±5% 이하는 B등급, ±5% 초과는 C등급으로 평가

**붙임1** | **9월중 국내금리 동향**

■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추가인상 시사(9월에는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금통위가 열리지 않음)**

- \* 한국은행이 9.24일 발간한 ‘2021년 9월 금융안정 상황’ 보고서에서 기준금리 인상이 금융안정과 금융불균형 완화에 기여할 것이라고 분석
- \* 9.29일 서영경 금통위 위원이 ‘한국경제 전망과 통화정책 과제’ 세미나에서 8월 기준금리 인상(0.50% → 0.75%)에도 통화정책이 여전히 완화적이라고 평가하며 점진적 금리 인상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

■ **국고채 3년물 금리는 전월말 대비 19bp 상승(8월말 1.40% → 9월말 1.59%)**

- 기준금리 추가인상 신호, 대외 정책 불확실성으로 상승세를 이어가다 매파적 9월 FOMC 결과에 따른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 급등, 인플레이션 우려로 9.28일 1.61%까지 상승
  - \* 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종가 기준): 9.22일 1.30% → 9.23일 1.43% → 9.24일 1.48% → 9.28일 1.54%

■ **국고채 10년물 금리는 전월말 대비 31bp 상승(1.91% → 2.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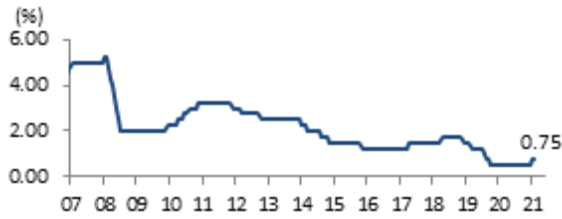
- 연준의 테이퍼링 경계감과 글로벌 인플레이션 장기화로 오름세를 지속하다 해외 금리 상승, 유가 급등에 연동하여 9.28일 2.26%으로 연중 고점 경신

**국내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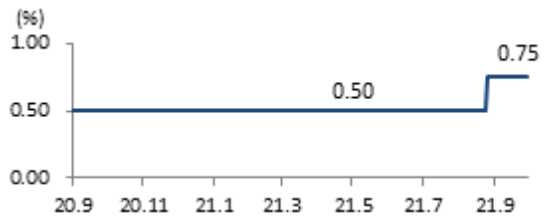
	단위	연간			분기				월간				
		2018	2019	2020	20.4/4	21.1/4	2/4	3/4	21.6월	7월	8월	9월	
금리	기준금리(기말)	%	1.75	1.25	0.50	0.50	0.75	0.50	0.75	0.50	0.50	0.75	0.75
	국고채(3년, 기말)	%	1.817	1.360	0.976	0.976	1.070	1.448	1.593	1.448	1.417	1.395	1.593
	국고채(10년, 기말)	%	1.948	1.683	1.713	1.713	1.551	2.092	2.237	2.092	1.874	1.912	2.237
스프레드	국고3년-기준금리	bp	7	11	48	48	32	95	84	95	92	65	84
	국고채10년-3년	bp	13	32	74	74	48	64	64	64	46	52	64
	한국-미국(10년)	bp	-74	-23	80	80	88	62	75	62	65	60	75
	한국-독일(10년)	bp	171	187	228	228	202	230	244	230	234	230	244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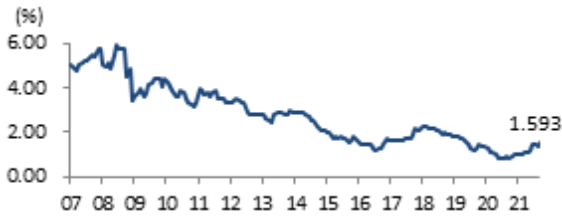
한은 기준금리(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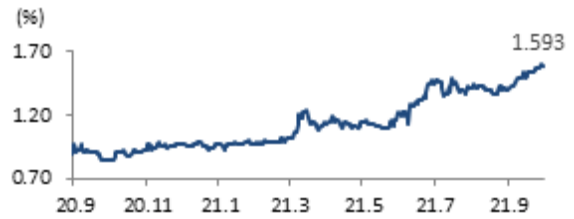
한은 기준금리(일간)



국고채 3년물(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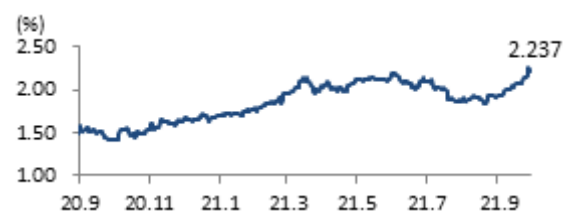
국고채 3년물(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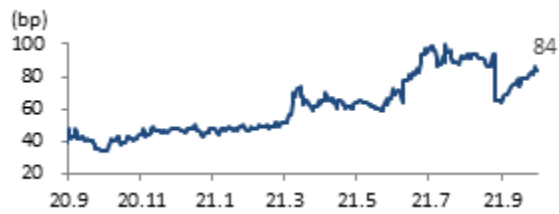
국고채 10년물(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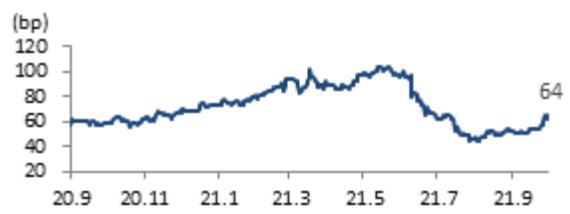
국고채 10년물(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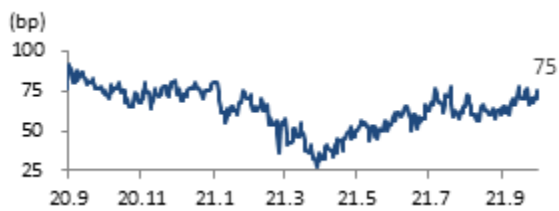
국고채 3년·기준금리차(일간)



장단기 금리차(국고채 10년-3년, 일간)



한국·미국 국채 10년물 금리차(일간)



한국·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차(일간)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붙임2 | 9월중 해외금리 동향

### ■ 미 연준은 9.21~22일 FOMC에서 현 수준(0.25% 상한)에서 동결

- 경기 회복세가 예상대로 지속될 경우 자산매입 속도를 줄이는 것이 곧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연내 테이퍼링 개시 가능성을 예고했으며, 종료 시점을 2022년 중반으로 구체화
  - \* 점도표 상 연준 위원들이 예상하는 금리인상 시점(중간값 기준)은 2023년에서 2022년으로 앞당겨짐(FOMC 위원 18명 중 9명이 2022년 인상을 전망)

### ■ 미 국채 10년물 금리는 전월말 대비 18bp 상승(8월말 1.31% → 9월말 1.49%)

- 9월 FOMC의 매파적 기조 강화, 선진국 중앙은행들의 예상보다 빠른 긴축 전환, 공급망 차질에 따른 인플레이션 경계감을 반영하여 상승
  - \* 9.27일 파월 연준 의장은 ‘물가에 대한 공급망 차질 영향이 예상보다 크고 길어졌으며, 향후 고물가 우려가 지속될 경우 기준금리를 인상할 것’이라고 언급

### ■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는 18bp 상승(-0.38% → -0.20%)

- ECB의 자산매입 규모 재조정, 미 국채금리 상승과의 동조화, 사민당의 총선 승리에 따른 재정지출 확대 기대로 상승(마이너스 금리폭 축소)
  - \* ECB는 9월 통화정책회의에서 4분기 펜데믹긴급매입프로그램(PEPP)을 통한 자산매입 규모를 지난 2, 3분기 대비 소폭 하향조정했으며, 라가르드 총재는 테이퍼링이 아닌 재조정(rebalancing)이라고 설명. 2021년 성장률(4.6%→5.0%)과 물가상승률(1.9%→2.2%) 전망치는 상향 조정

### ■ 영국 국채 10년물 금리는 31bp 상승(0.71% → 1.02%)

- 영란은행(BOE)의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2022년 기준금리 인상 가능성, 서비스업 중심의 경기회복세 지속으로 국채금리가 급등
  - \* BOE는 9.24일 통화정책회의에서 기준금리(0.10%)와 연간 자산매입 목표액(8,950억 파운드)을 유지했으나, 4분기 중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까지 높아져 목표치(2.0%)를 크게 상회할 것으로 예상함에 따라 향후 통화 긴축 필요성에 대해 언급
  - \* 서비스업 PMI(기준선=50): 6월 62.4 → 7월 59.6 → 8월 55.0 → 9월 54.6

■ 일본 국채 10년물 금리는 4bp 상승(0.03% → 0.07%)

- BOJ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지속에도 불구하고, 9월 중순 이후 미 국채금리 급등에 따른 글로벌 금리 오름세, 방역단계 완화와 신임 총리 선출 이후 일본 경기 회복 기대를 반영하여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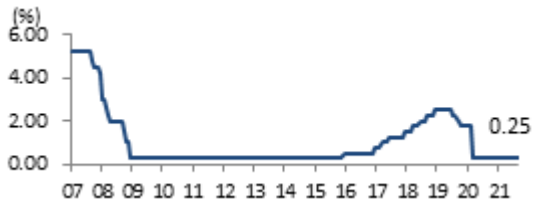
\* 코로나 확진자수(7일 평균, 명): 7.31일 7,372 → 8.31일 21,569 → 9.30일 2,239

해외금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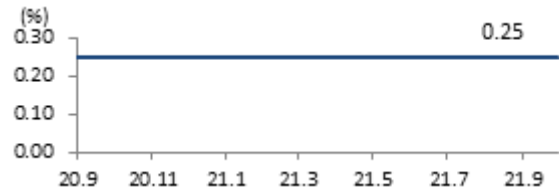
	단위	연간			분기				월간				
		2018	2019	2020	20.4/4	21.1/4	2/4	3/4	21.6월	7월	8월	9월	
미국	기준금리(기말)	%	2.50	1.7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국채(10년, 기말)	%	2.684	1.918	0.913	0.913	0.670	1.468	1.487	1.468	1.222	1.309	1.487
독일	기준금리(기말)	%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국채(10년, 기말)	%	0.242	-0.185	-0.569	-0.569	-0.471	-0.207	-0.199	-0.207	-0.461	-0.383	-0.199
영국	기준금리(기말)	%	0.75	0.75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국채(10년, 기말)	%	1.277	0.822	0.197	0.197	0.356	0.716	1.022	0.716	0.565	0.714	1.022
일본	기준금리(기말)	%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0.10
	국채(10년, 기말)	%	-0.003	-0.028	0.026	0.026	0.026	0.059	0.074	0.059	0.018	0.026	0.074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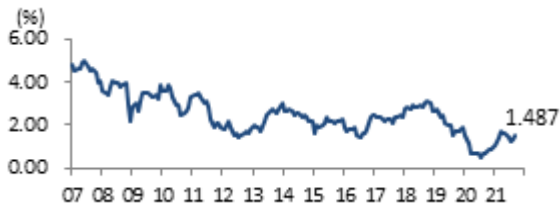
연준 기준금리(월간)



연준 기준금리(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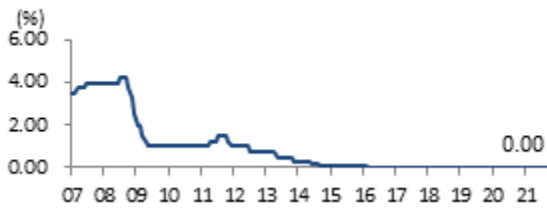
미국 국채 10년물(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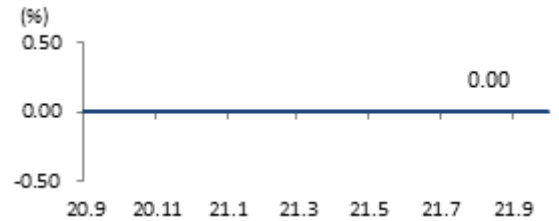
미국 국채 10년물(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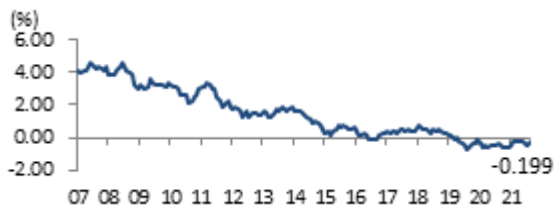
ECB 기준금리(월간)



ECB 기준금리(일간)



독일 국채 10년물(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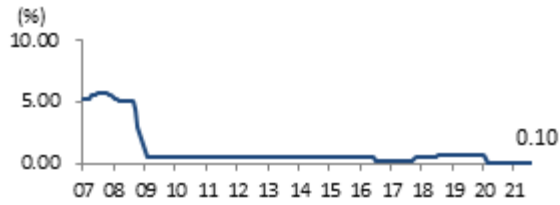


독일 국채 10년물(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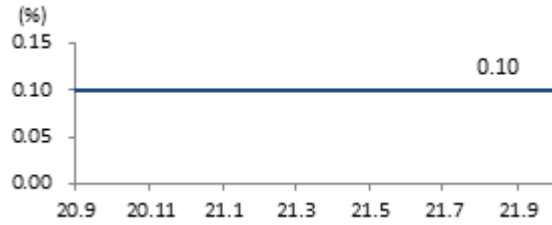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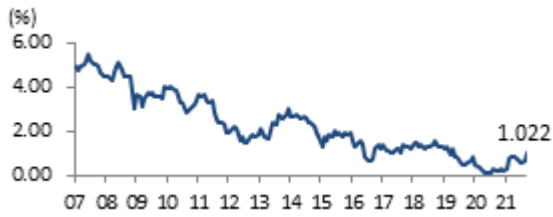
BOE 기준금리(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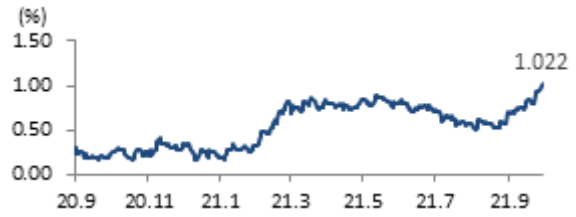
BOE 기준금리(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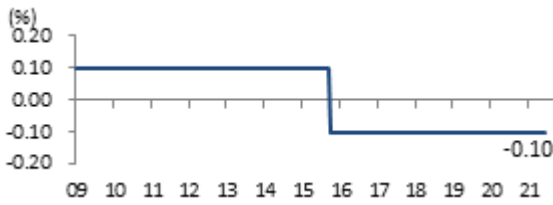
영국 국채 10년물(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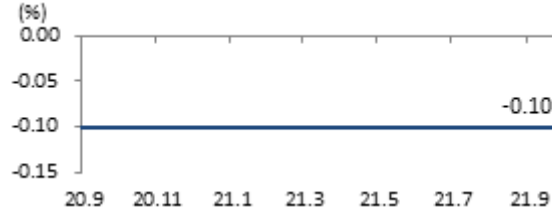
영국 국채 10년물(일간)



BOJ 기준금리(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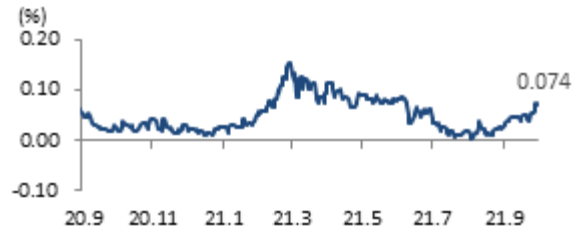
BOJ 기준금리(일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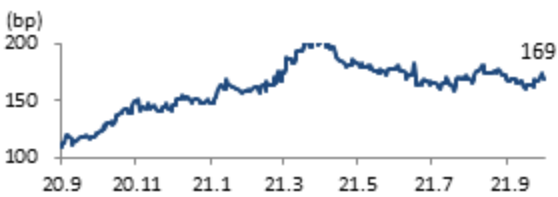
일본 국채 10년물(월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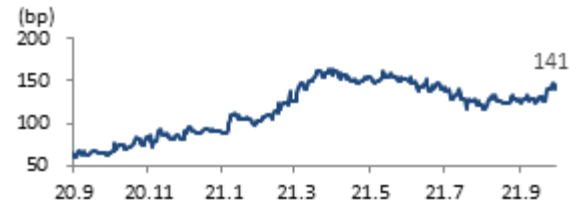
일본 국채 10년물(일간)



미국·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차(일간)



미국·일본 국채 10년물 금리차(일간)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붙임3** | **9월중 환율 동향**

■ **원/달러 환율은 전월말대비 2.1% 상승(원화 약세, 8월말 1,160 → 9월말 1,184)**

- 헝다그룹 사태, 미국 부채한도 협상 등 글로벌 불확실성 증대, 연준 테이퍼링 가시화에 따른 미 달러화 강세(달러지수 8월말 92.6 → 9월말 94.2), 국내 코로나 확산세 지속에 의한 경기회복 지연 가능성을 반영하여 오름세

■ **위안/달러 환율은 0.2% 하락(위안화 강세, 6.46 → 6.44)**

- 헝다그룹 파산 가능성에 의한 증시 불안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될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전력난 등으로 경기회복세가 둔화됨에 따라 중국 당국의 경기부양 기대가 점증하며 소폭 절상
  - \* 헝다 그룹은 9.23일 달러채권 이자 8,350만 달러, 9.29일 4,520만 달러를 미지급한 것으로 알려졌고, 30일 유예기간 이후 디폴트 가능성이 제기

■ **엔/달러 환율은 1.2% 상승(엔화 약세, 110.0 → 111.3)**

- 미 국채수익률 급등에 따른 미·일 금리차 확대, 미 달러화 절상, 일본은행의 완화적 통화정책 기조 유지로 엔화가 약세를 시현
  - \* 미국-일본 10년물 국채 금리차(bp): 7.30일 120 → 8.31일 128 → 9.30일 141

■ **달러/유로 환율은 1.9% 하락(유로화 약세, 1.181 → 1.158)**

- ECB 자산재조정 이후 라가르드 총재의 완화적인 발언, 연준 연내 테이퍼링 가시화로 인한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차이를 반영하여 하락
  - \* 라가르드 총재는 자산매입속도 완화가 테이퍼링이 아닌 재조정(rebalancing)이라고 설명

주요 환율

	연간			분기				월간			
	2018	2019	2020	20.4/4	21.1/4	2/4	3/4	21.6월	7월	8월	9월
원/달러(기말)	1,116	1,156	1,086	1,086	1,217	1,126	1,184	1,126	1,150	1,160	1,184
위안/달러(기말)	6.88	6.96	6.53	6.53	7.08	6.46	6.44	6.46	6.46	6.46	6.44
엔/달러(기말)	109.7	108.6	103.3	103.3	107.5	111.1	111.3	111.1	109.7	110.0	111.3
달러/유로(기말)	1.147	1.121	1.222	1.222	1.103	1.186	1.158	1.186	1.187	1.181	1.158
달러지수(기말)	96.2	96.4	89.9	89.9	99.0	92.4	94.2	92.4	92.2	92.6	94.2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 붙임4 | 9월중 주가지수 동향

### ■ KOSPI 지수는 전월말 대비 4.1% 하락(8월말 3,199 → 9월말 3,069)

- 대형 반도체주 조정, 플랫폼 기업 규제 리스크, 코로나 확산세 지속에 더하여 중국 부동산 기업 파산 이슈, 공급망 차질, 원자재 가격 상승, 국채금리 급등, 미국 증시 조정의 영향으로 하락폭이 확대
  - \* 9월 중 주체별 코스피 순매수(조원): 개인 +2.7, 외국인 +1.1, 기관 -4.2
- 국내 은행주는 2.6% 상승(코스피 대비 6.7%p 강세)
  - 시중금리 상승으로 인한 실적 전망 개선과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하나금융(+3.0%), 우리금융(+3.6%), KB금융(+4.5%), 신한금융(+4.0%) 모두 상승
  - 카카오뱅크는 9.6일 의무보유제한 해제로 순매도세가 이어진데 더해, 9.10일부터 공매도 투자가 가능해진 이후로 하방압력이 점증하여 급락(-18.5%)
    - \* 9월 중 외국인 순매수(억원): KB +1,278, 우리 +464, 하나 +428, 신한 +1,163, 카카오뱅크 +1,165
- 글로벌 Top 50 은행주는 2.0% 높아짐(아시아 Top10 은행주도 2.9% 상승)
- 국내 그린주(WGSI)는 0.1% 하락(코스피 대비 4.0%p 상승)
  - 시총 비중이 높은 태양광(+6.7%), 2차전지(+3.5%)를 제외한 모든 섹터가 하락
    - \* 시가총액 증감률(% , MoM): 수소 -6.7, 전기차부품 -6.4, 풍력 -5.1, 전기차 -4.8, 리사이클링 -3.2, 에너지효율 -2.9
  - 태양광은 미국 정책지원 강화\*로, 2차전지는 미국 내 공장건설 발표\*로 강세
    - \* 미 정부는 2035년 전력공급 내 태양광 비중을 현재 5%에서 40%로 확대한다고 발표
    - \* SK이노베이션은 포드와 협력하여 역대 최대 규모(129GWh(EV 215만대 납품), 114억 달러(약 13.1조원))의 배터리 공장을 건설할 계획
  - 수소 부문은 8월말 수소기반전력 구매의무화를 담은 '수소경제 활성화 로드맵 2.0' 발표 기대로 급등하였으나, 정책 발표 지연으로 하락

### ■ KOSDAQ 지수는 3.4% 하락(1,038 → 1,003)

- 플랫폼 기업규제, 인플레이션 우려로 9.8일 1,037까지 급락, 백신 접종률 증가에 따른 워드코로나 기대감이 소비 관련주 강세를 이끌어 9.17일 반등

(1,046)했으나, 헝다그룹 파산 위기감 지속, 미국 국채 금리 상승, 2차 전지 테마 조정으로 9.29일 1,001까지 하향 조정

\* 9월 중 주체별 코스닥 순매수(조원): 개인 +1.9, 외국인 -0.8, 기관 -1.5

■ 선진국(MSCI DM) 증시는 4.3%, 신흥국(MSCI EM) 증시는 4.2% 하락

- 미국(-4.8%), 유럽(-3.5) 증시 하락, 일본(+4.9%), 중국(+0.7%)은 상승

■ S&P500 지수는 4.8% 하락(4,523 → 4,308)

- 헝다그룹 디폴트 이슈와 9월 FOMC 경계로 9.20일 4,358까지 급락한 이후 통화정책 조기 긴축 우려 완화로 9.24일 4,455까지 회복했으나, 연준의 매파적 기조, 국채 금리 급등, 인플레이션 장기화, 공급망 차질, 증세·부채 한도 상향 등 정책적 불확실성으로 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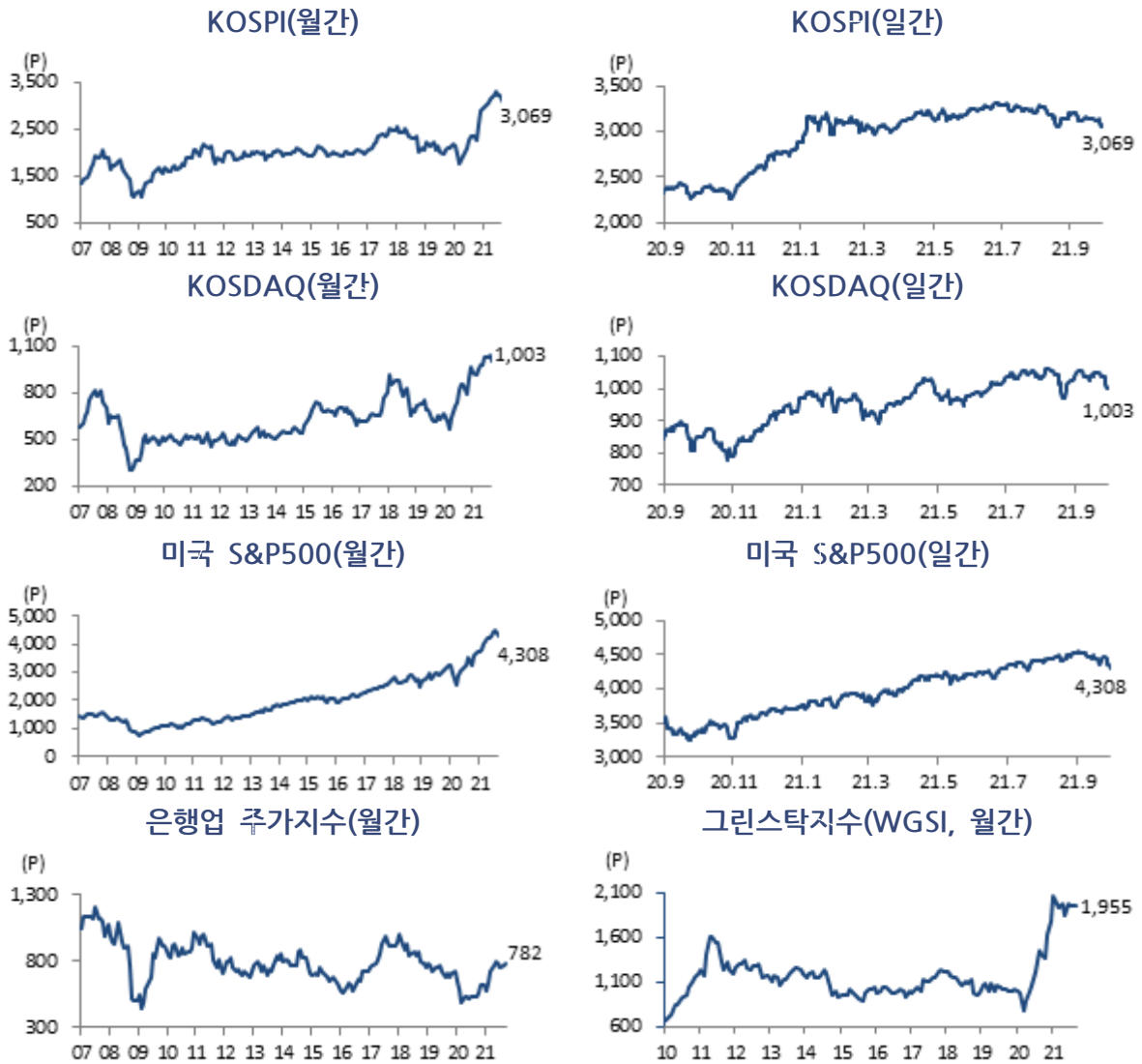
주요 주가

		연간			분기			월간				
		2018	2019	2020	20.4/4	21.1/4	2/4	3/4	21.6월	7월	8월	9월
국내 증시	KOSPI	2,041	2,198	2,873	2,873	1,755	3,297	3,069	3,297	3,202	3,199	3,069
	KOSDAQ	676	670	968	968	569	1,030	1,003	1,030	1,031	1,038	1,003
해외 증시	(선진국)MSCI DM	1,884	2,358	2,690	2,690	1,853	3,017	3,007	3,017	3,069	3,141	3,007
	(신흥국)MSCI EM	966	1,115	1,291	1,291	849	1,375	1,253	1,375	1,278	1,309	1,253
	(미국)S&P500	2,507	3,231	3,756	3,756	2,585	4,298	4,308	4,298	4,395	4,523	4,308
	(일본)Nikkei225	20,015	23,657	27,444	27,444	18,917	28,792	29,453	28,792	27,284	28,090	29,453
	(유럽)Eurostoxx50	3,001	3,745	3,553	3,553	2,787	4,064	4,048	4,064	4,089	4,196	4,048
	(중국)상해종합지수	2,494	3,050	3,473	3,473	2,750	3,591	3,568	3,591	3,397	3,544	3,568
은행주	KRX은행 <sup>1)</sup>	758	724	614	614	480	782	782	782	747	762	782
	우리금융	n.a.	11,600	9,730	9,730	7,650	11,450	11,650	11,450	10,850	11,250	11,650
	KB금융	46,500	47,650	43,400	43,400	34,550	55,800	55,300	55,800	51,300	52,900	55,300
	신한금융	39,600	43,350	32,050	32,050	28,600	40,600	40,400	40,600	39,150	38,850	40,400
	하나금융	36,250	36,900	34,500	34,500	23,100	46,050	46,400	46,050	43,450	45,050	46,400
	카카오뱅크	n.a.	n.a.	n.a.	n.a.	n.a.	n.a.	68,400	n.a.	n.a.	83,900	68,400
그린주	WGSI <sup>2)</sup>	980	1,015	1,772	1,772	1,938	1,978	1,955	1,978	1,952	1,958	1,955

주1: 시장 대표성을 반영하기 위해 10월부터 와이즈에프엔의 WI26 업종분류 기준 지수(WI500)에서 한국거래소가 발표하는 은행업 주가지수(KRX은행)으로 변경

주2: 그린스탁지수(WGSI)는 우리금융경영연구소가 산출하는 그린 비즈니스 지수

자료: Bloomberg, 우리금융경영연구소



자료: Bloomberg

\* 동 보고서는 연구원들이 신뢰할만한 자료와 정보를 바탕으로 금융시장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작성·배포되는 조사분석 자료입니다. 동 보고서에 수록된 정보(시황에 대한 예측 또는 금융시장지표 전망 등)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으므로 투자 시에는 개인의 판단과 책임하에 결정하시기 바랍니다.